

전남도 1조1000억원 규모 '바이오메디컬 허브' 구축 나서

상반기 첨단의료복합단지 예타 신청...대구·충북 오송과 차별화 21일 서울서 대구모 토론회 갖고 정부 상대 본격적인 유치전

전남도가 올 상반기 내에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정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지정된 대구·충북 오송과는 달리 전남의 다양한 의학치유자원을 활용, 면역 세포 치료, 항노화 등 바이오의약분야에서 연구생산 치료효양까지 모두 아우르는 집적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전남도의 계획이다. '스마트의료양양 복합클러스터'와 '전남형 첨단의료복합단지'가 포

합되는 '바이오메디컬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1조 1000억원의 대규모 재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20일 "기존 대구, 충북 오송에 더해 전남에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확대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21일 서울에서 온택트로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회 신정훈 의원실이 주최하고 전남도가 주관

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신정훈·김일이·이윤빈·김민석·김성주 의원 등 국회의원, 구충곤 화순군수,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토론회 주제는 '국가 바이오의료산업 성장 거점으로서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 방향'으로, ▲전남도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계획(안) ▲전남 바이오산업 현황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필요성 ▲전남도 바이오의료산업 현황 및 차별화 전략 등이 주로 논의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족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단지로, 정부가 2005년부터 2038년까지 5조6000억원 예산으로 첨단신약, 의료기기 등 국내 의료산업을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는 국정사업이다. 현재 정부가 선정한 부지는 대구 신서혁신도시와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두 곳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기영 순천대 대학원장이 '전남 바이오산업 현황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필요성', 박성호 백신실용화학개발사업단 사무국장이 '국내 바이오클러스터의 현황 및 발전 방향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등을 기조 발제한다.

이어 이준행 전남대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박기영 순천대 대학원장, 박병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승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센터장, 임신혁 POSTECH 교수, 지동현(주)커넥트클리닉사이언스 대표,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충북 오송과 대구와 달리 전남은 의학치유자원을 완벽하게 갖춘 곳으로 바이오산업과 첨단의료산업을 융복합할 수 있는 적지"라며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국토 서부권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랑의 밀반찬 나눔행사 20일 광주시 북구 우산동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The드림채움장터)에서 '행복다하기! 영양등뽕' 밀반찬 나눔행사가 열렸다. 문인 북구청장과 동신지역자활센터 회원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취약계층 500세대에 전달할 밀반찬을 포장하고 있다.

"'전남형 산림뉴딜사업' 적극 동참해 달라"

김영록 지사, 산림조합장 간담회

김영록 전남지사가 20일 전남지역 산림조합장과 전남형 산림뉴딜 협력 간담회를 갖고 "전남형 산림뉴딜 사업에 산림조합장들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가진 간담회에는 박진욱 전남산림조합협회회장, 손철호 산림조합중앙회 전남본부장, 21개 시·군 산림조합장 등이 함께 했으며, 산림정책 분야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전남산림조합협회회는 전남지역 임업인을 대표해 김 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전남의 산림인적 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0만원을 함께 기탁했다. 지난해 전남지역 산림조합은 코로나19 극복 성공과 수해피해 기부금 등 2억여원을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산림조합장들은 임업인 지원정책 확대와 경제림 육성단지내 조림사업 자부담 면제 등을 건의했으며, 지방일괄 이양법 시행에 따른 산림조합과 행정기관 간 협업체 구성에 관한 의견도 제시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산주의 산림경영 참여 확대와 부담 경감을 위해 조림 자부담을 면제하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산림행정적 적극 반영해 임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전라남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서남해안 섬숲 복원과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등 앞으로 펼쳐질 전남형 산림뉴딜사업에도 조합장들이 관심 갖고 함께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청년후계농 214명 선발

전남도는 올해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의 독립영농경력 3년 이하 농업인을 대상으로 214명의 청년후계농을 선발한다.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농업인들은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비롯 최대 3억원의 창업자금, 영농기술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영농정착 지원금과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청년후계농은 영농 유지와 교육 이수, 경영장부 작성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사업을 희망한 농업인은 연령, 영농경력, 병역, 거주지 등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1월 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c.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젊고 유능한 청년들의 농촌유입을 촉진해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만들겠다"며 "영농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군 공항 소음 대응 '지역 합동 협의회' 가동

군 공항 소음에 대응하는 광주 민관 합동 협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합동 협의회'는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군 소음 보상법)을 토대로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소음 영향도 조사, 소음 대책 지역 지정에 대응한다. 그동안 관련 법률 미비로 지역 주민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소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 11월 군 소음 보상법이 제

정·시행되면서 신청만으로도 보상받게 됐다. 광주시는 보상에 필요한 소음 영향도 조사 등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대표단,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했다. 소음 영향도 조사는 지난해 11월 영랑권인 광산구, 서구, 북구를 중심으로 민원이 빈번한 15개 지점을 대상으로 1차 조사가 이뤄졌으며 상반기 중 2차 조사가 진행된다. 국방부는 협의체 의견을 반영해 오는 12월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글로벌모터스 첫 신입사원 채용 경쟁률 68대 1

186명 모집에 1만2603명 지원

전국 최초 지역 상생형 일자리 기업인 광주 글로벌모터스(GGM) 첫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1만 2000여명이 몰려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20일 GGM에 따르면 기술직(생산직) 186명을 뽑는 공채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만2603명이 지원해 6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 속 취업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 현실과 함께 GGM에 대한 큰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사측은 분석했다. 지역 인재 우대 조항으로 광주·전남 고교, 대학교 졸업자와 졸업예정

자들이 대거 몰렸다. GGM은 전문업체 마이다스인을 통해 원서를 접수하고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채택해 공정성을 확보했다. 응시자들은 21일까지 인공지능(AI) 역량 검사를 거친다. 1단계는 영상면접으로 AI가 지원자의 자기소개, 지원 동기 등 발표 과정에서 감정을 파악한다. 2단계는 인·적성 검사로 150문항 내외 질문과 답변이 이뤄지며 3단계는 10가지 게임을 통한 상황 판단력 등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 시험을 거쳐 발표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사업 공모하세요"

전남도, 27일까지...사업비 21억 지원

전남도는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1년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농식품 제조·가공 분야 활성화로 지역농산물 소비에 기여하고, 식품업체의 매출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총사업비는 21억원으로 올해 5개소 내외로 선정해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및 강소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도내 소재하며 농식품 제조·가공업 영입등록을 한 법인 및 사업체로 출자금 1억원 이상,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다. 사업을 희망할 경우 오는 27일까지 소재지 시·군 농식품 유통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현장확인 및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개소당 5억원, 강소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개소당 3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Passion Vision Truth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편입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재외국민
인문	신학과	13	1	
	한국어교육학과	4		4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15	1	
사범	유아교육과	2	1	
예능	음악학부	8		

▶ 전형일정
·원서접수: 2021. 1. 12(화) ~ 25(월)
·전형일: 2021. 1. 29(금) 오후 2시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6
		성경연구학과(Th.M.)	2
		신학과(Ph.D.)	3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3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3
		신학과(Th.M.)	4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3
		상담심리치료학과(M.A.)	8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6
		재활심리치료학과(M.A.)	5
국제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8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17

▶ 전형일정
·원서접수: 2021. 1. 18(월) ~ 27(수)
·전형일: 2021. 1. 29(금) 오후 2시 30분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0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자
3학년	0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자

▶ 전형일정
·원서접수: 2021. 1. 18(월) ~ 27(수)
·전형일: 2021. 1. 29(금) 오후 3시

www.kwangshin.ac.kr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